

# 서울南大門지붕의 變遷

申 榮 勳

解體工事時 發見된 古材와 修理前 架構를 調査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問題를 發見하게 된다.

洪武二十九年創建된 以來 今番 重修工事を 施工하기까지 木造建物は 四回以上の 大幅의인 지붕 改造를 겪어왔다고 보인다(數値를 提示 比較 檢討하여야겠지만 他稿로 미루고 本篇에서는 그 概要만을 略記 叱正을 得코저 한다)

積心中에서 出現한 古材추녀(上層추녀의 補助及積心用材)는 이 建物이 最初로 重修되었던 時期까지 上層屋蓋四隅에 使用되었던 最古의 部材로 推定된다.

추녀의 모습은 사래(접처마를 이루는 中心部材)가 없이 추녀홀몸으로 지붕을 만드는 홀처마용의 樣式인데 後期의 추녀보다는 양곡이 대단히 強하고 추녀머리에 토수(吐首)를 끼울 處를 갖었다.

第一次重修가 있기전까지의 지붕모습은 팔작지붕의 홀처마(부연이 없 는것)이었던 모양이다.

上樑文墨書에 보이듯 第一次重修는 世宗三十年에 施工되었다. 이때의 工事は 實錄에 「新作崇禮門」이라고 記錄할만큼의 根本的인 修理로 지붕도 第一次의 改造가 斷行되 積心에서 出土한 古材사래가 이때 登場하게 된다.

홀처마를 접처마로 바꾸는 改造는 추녀와 사래를 新造하여야만 可能하였기 때문에 먼저의 추녀는 積心材로 쓰고 새로이 추녀와 사래를 만들었던 모양이다(出現한 古材사래는 材質이나 手法이 古材추녀에 비금한다)

지붕의 모양은 아직도 팔작지붕으로 추녀의길이나 양곡도 그에 따라

裁斷하였다.

第二次重修에 關한 記錄도 墨書로 發見되었어서 大幅的인 修理가 進行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때에 비로서 지금 使用되고 있는 추녀가 登場하였던 듯하다. 이 추녀는 지금 원래의 양곡을 잃고 있어 옛모습을 分明하게 볼 수 없지만 古材사래와 더불어 팔작지붕을 構成하는 中樞役을 하였다.

第三次重修는 記錄에도 墨書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 어느만큼의 改造가 있었는지 未詳하나 筆者는 이때 지붕의 形態가 추진 각지붕으로 改造된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팔작지붕을 추진 각지붕으로 改造하기 위하여 上樑大樑以上の 架構가 變造되어야 하였고 추녀와 사래가 양곡에 맞추어 다듬어져야 되었다.

이때의 補修는 前期의 他工事와 달리 新規部材를 充分히 使用할 수 없는 條件下에서 進行되었다. 되도록 古材를 仍用하되 不可避한 部分은 UNG색하지만 變造하고 不得已한것만 新材로 交替한다는것이 根本 方案이었던 모양이다.

臺工과 그의 架構物등 숨겨지는 部材는 모두 古材를 적당히 變造하기로 하고 추녀도 팔지만 그대로 使用하되 양곡을 무시할 수 없으니 사래만은 新造하고 宗樑以上の 架構는 天井을 만들어 가린다는 것이 工事의 概要이었다.

天井을 新設한다는 것과 古材를 適當히 變造하여도 좋다는 默認이 달 라짐에 따른 뒤처리를 소홀하게 하도록 하는 結果를 낳았다.

이러한 뒤처리의 無誠實은 그 후 建物에 致命的인 打擊을 加하게 되어 부득이 第四次의 補修工事로 수습하여야만 되었다.

그간 허여져나린 部材를 補強하고 지그리지고 깨어진 部材를 補強鐵이나 草業工으로 支撐하는 등 攪亂된 架構를 어실뜨게 整理하려는 意圖중 에 태이를 校正하려는 뜻도 包含되어 있었다.

추녀 뒷몸을 적당히 얼버무리놓은 狀態는 荷重의 前傾度를 加重하게 되었고 처마머리는 뒤죽박죽이 되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만 外樣을 갖출 수 있었다. 이 工事도 이러한 措置를 쉽게 하고 싶었다. 추녀를 補強

鐵로 누르는 이외 더 손을 대지 않고 선자에 신경을 집중하여 이 부분에서 校正을 企圖하였다. 선자를 다루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었던지 그것도 省略하고 원래의 맥이를 잘도산방으로 적절히 조절하려 하였다. 말하자면 이 공사는 음습주리에 해당된다고나 할 그러한 施工方案에 따라 進行되었다.

지붕은 毅然 우진각지붕으로 이 形態는 南大門後半期の 面貌로 維持되었다.

四次의 工事は 手法으로 보아 十八世紀後半이나 一九世紀初에 施工되었으리라고 推定된다.

南大門에서 가장 興味있는 課題는 第三期의 工事年代를 考察하는데 있어 가장 重要な 屋蓋를 變造하면서도 아무런 記錄을 남기지 않았던 時期는 과연 언제이었을까 이때는 우진각지붕에 팔각지붕보다 어떠한 趨勢에 따라 效用價値가 높아졌을 때이다. 팔각지붕을 改造하면서까지 그 潮流에 따르고저한 風潮가 汎濫하던 時期이었을 것이다. 이는 多分히 外部의 影響이 있을 것이고 이는 強力한 作用을 加하였을 것이다.

壬辰亂에 燒失된 宮闕을 復舊하기 시작하여 차츰 면모를 一新하기 비롯한것은 光海君年間 부터이다. 이 기간에 昌德宮과 昌慶宮등 模範的인 宮闕도 造成되었다. 昌德宮과 昌慶宮의 建物들은 大部分 舊基에 復古되었는데 그 手法과 外樣도 옛모습을 따랐는지는 未詳하다. 옛모습이었던지는 分明치 않더라도 敦化門과 弘化門이 正殿등 諸建物과는 달리 우진각지붕을 갖게 되었다.

李朝前期建物로 指目되는 開城南大門, 平壤普通門等の 城郭樓門과 後期에 속하지만 全州豐南門을 비롯한 邑城의 樓門들이 대부분 팔각지붕이고 別宮, 祠堂, 寺宇의 正門들이 대부분 팔각지붕인데 유독, 敦化門, 弘化門, 南大門, 東大門등 서울의 威嚴裝飾的인 建物들만이 우진각지붕을 갖었다. 이는 外部의 影響의 反射的인 感得이라고 解釋할 수 없을 까.

明末清初에 北遼의 影響이랄가 우진각지붕이 盛行하게된 氣運을 李朝에서도 재빨리 受容하였다고 한다면 光海君年間の 敦化門, 弘化門의 우

진각지붕도 전혀 우연한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南大門의 물매 추녀와 사례의 양쪽등의 手法이 前期 敦化門이나 昌德宮과 並行한다고 하면 전혀 案外의 일이었을까.

第三次의 重修는 이러한 時期, 光海君年間 늦어서 仁祖年間쯤으로 推定하여 보면 어떨까. 敢히 同學諸位에게 問題를 題起하고 敎示를 바란 다.

## 오금집과 덩빙·柱礎

金 東 賢

오금집은 建築用語로서 널리 알려진 말은 아니다. 오금집이 建築用語로서 언제부터 使用되었으으며 어떠한 理由에서 오금이라는 말이 생겨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 古建物에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몇몇 建物들(浮石寺 祖師堂, 雙峰寺 大雄殿, 傳燈寺 大雄殿 및 藥師殿等)의 建築年代를 보면 高麗末 李朝初로부터 이러한 手法이 傳來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筆者가 처음으로 오금집이란 用語를 듣게 된것은 故 林泉先生님으로부터 西紀一九六一年 江華郡 吉祥面 所在 傳燈寺 大雄殿 및 藥師殿의 實測調査를 進行中 듣게 된것이 最初이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오금집에 關하여 이렇다 할만한 充分한 科學的인 根據資料를 얻지는 못하고 있으나 다만 오금집에 關한 構造的인 事實과 意匠 및 力學的인 效果에 對한 簡單한 資料紹介와 오금집과 덩빙·柱礎가 密接한 關係에 있다는 點에 對하여 筆者의 意見を 紹介하고자한다.

### 一, 오금집의 構造

外列柱가 垂直線上으로부터 기둥머리 部分을 建物の 重心點을 向하도록 안솔림시켰으며 이에 따라 棋包가 안솔림되었다.

안솔림의 寸數는 建物 規模에 따라 그 度數가 一定치 않으나 傳燈寺